

홈 > 뉴스 > 기획 > 제주 근대 유산의 길을 걷다

"김영관 도지사의 추진력으로 건물 신축 결실 맺어"

동문시장㈜ 대표이사 김용욱 인터뷰

데스크승인 2013.05.19 좌동철 기자 | roots@jejunews.com



"지금은 많이 위축됐지만, 1990년대만 해도 제주 최고의 상권이었다. 사양길에 접어든 시장 활성화
화를 위해 앞으로 재투자가 필요하다."

김용욱 동문시장㈜ 대표이사는 과거 호황기를 누렸던 시장의 다시 번영할 수 있도록 동분서주 뛰
고 있다.

동문시장㈜는 현재 81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포목점이 25곳(31%)으로 주력 업종이
다.

이에 따른 파생 업종인 재봉업이 18곳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양품점 10곳, 커텐집 3곳, 침구점 2
곳 등으로 업종의 70%는 포목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는 김영관 도지사의 과감한 추진력으로 시장 건물이 건립됐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번영회 차원에서 건물을 지으려니 돈이 없었다.

은행에서 용자를 받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물심양면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그런데 2층에 들어선 동양극장을 민간에 매각하게 된 것은 비싼 금리 때문이었다. 그는 “1980년대 연 금리가 15%까지 오르면서 비싼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주식회사가 소유했던 극장을 팔게 됐다”고 사연을 밝혔다.

동문로터리에 있던 동문시장(주) 신축될 당시 현대식 상가 건물로 주목을 받았다. 업종도 다양해 포목부, 미곡부, 양품부, 잡화부, 신발부 등을 두루 갖춘 종합 쇼핑타운이었다. 상가 내 국수가게에는 빈 테이블이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도민들은 옷과 운동화를 사러 ‘동문시장에 간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였다.

좁쌀과 보리쌀을 담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온 농촌 아낙네들이 시장에 내다 팔고, 생필품을 다시 보따리에 싸고 가는 풍경은 낯설지 않았다고 상인들은 얘기를 했다.

김 대표는 “시장과 영화관을 겸비한 이 건물은 도민들의 애환이 깃들여 있다”며 “기성복이 나오면서 포목은 사양길에 접어든 만큼, 앞으로 새로운 업종으로 재도약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문시장(주) 건물은 대대적인 증축 없이 지금까지 48년 동안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 제주신보(<http://www.jeju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제주新보